도내 중·대형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 결과

관리비 비리 의혹이 사실로

전체의 34% 107개 단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 전국 평균 2배 육박

도내 중·대형아파트 단지 10개 중 3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전북지역 감사 대상 384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82.0%인 315개 단지가 참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34.0%인 107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평균 19.4%보다 2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강원도 36.8%에 이어 전국에서 높은 결과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4주 연속 하락

대출규제 강화·공급 과잉 우려 겹쳐… 수도권 보합·지방은 내림폭 확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지난달 15일 약 1년8개월(86주)만에 오름세가 꺾인 이후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봄 성수기임에도 대출규제 강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역교통망 호재가 있거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보합세로 전환된 반면 지방의 경우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는 하락, 서울은 보합, 인천은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강북권(0.01%)은 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강남권(-0.01%)은 강남4구의 내림세가 지속됐다. 금천구와 관악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교통호재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방(-0.02%)에서는 신규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졌다. 반면 제2공항 건설과 국제영리병원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제주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 이주수요 영향을 받은 전남의 매매가도 올랐다.

대구(-0.12%), 경북(-0.09%), 충북(-0.07%) 등이 하락한 반면 제주(0.29%), 전남(0.08%), 부산(0.03%), 울산(0.02%) 등은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상승폭(0.04%)을 유지했다.

신도시나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매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경우 0.06% 상승했다. 서울(0.04%)은 오름세가 둔화된 반면 인천(0.06%)과 경기(0.08%)는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방(0.02%)은 세종시의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림세가 심화됐다. 세종의 경우 지난 2014년 입주물량의 전세 만기가 다가온데다 세종시 공무원의 전세선호 현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성주 기자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예산 조기집행 나서

상반기 285억 계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전북 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나선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올해 사업비 총 438억원 중 60.5%인 285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설계용역을 신속히 실시해 조기 발주할 방침이다.

도로포장 같은 단순공사는 3월중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하고, 선금지급 및 신속한 기성검사 실시 등을 통해 자금을 조기 지급해 상반기 집행목표 60.5%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사 및 용역 발주시 원칙적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하도급 계약 및 자재·장비 사용도 지역업체와 지역생산 물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노임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상시점검체제도 운영해 근로자 및 중소업체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미수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소장은 "재정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남원,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지역 6개 시군의 일반국도(L=428.1㎞)와 국가하천 섬진강(L=137㎞)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용 로봇 산업육성 업무협약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전북 농업용 로봇 산업육성 및 보급 활성화와 선진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농업용 로봇 산업 발전 및 농업용 로봇 보급 활성화 등 선진 농업 생태계 조성에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김중옥 소장은 "농업용 로봇이 실질적인 수요 농가와 연계하여 보급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농업용 로봇 성능향상과 농업용 로봇의 보급 확산 등 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동양물산기업(주)의 '무인자율주행 트랙터', ㈜로보닉스의 '시설화훼 자율 운송로봇', ㈜케이에스에프의 '반자동 방제 및 스마트 권선 로봇' 등을 전주, 익산 및 부안 등 도내의 시설농가와 민간농가에 투입 운영 중이다. /신광영 기자

알파고 vs 이세돌 대결

바둑용품 판매율 크게 성장

나무 바둑판까지 등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 9단이 펼치는 세기의 바둑 대결 인기에 바둑 용품의 판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나무 바둑판까지 등장하는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10일 아이파크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 매장에 나무 바둑판이 다시 등장하는 등 바둑용품의 판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용산 아이파크백화점에 입점한 테이블게임 전문매장 '마스터 보즈게임즈' 매출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5.9% 증가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세기의 대결 소식을 접한 이들이 바둑용품을 많이 구입했다.

롯데마트가 2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바둑용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04.8% 올랐다. 이마트의 경우 바둑 1차 대전이 진행된 지난 9일 하루간 바둑용품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10%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G마켓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바둑용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0% 매출이 늘었다. 옥션에서는 바둑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11번가에서는 같은 기간 바둑용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했다.

아이파크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며칠 새 바둑판을 찾는 문의가 이어져 '정통 나무 바둑판'을 백화점 매장에 처음으로 들여놨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8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과 전북상품 수출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부스임차료(추가장치비 포함), 운송비, 박람회 관련 홍보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비용 일부를 최대 500만원(해외박람회 500만원, 국내 박람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2회, 국내 박람회 1회 등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북도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jbtrade.jeon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3억원 예산이 책정돼 9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2016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특별회비 전달, '사랑의 빵 나눔터' 설립 지원, 정기적인 빵 만들기 및 결식아동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 실시,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은 "전북은행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하고, 전달받은 특별회비는 이웃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특별회원증을 전달받은 임용택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사랑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도내 중소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본부는 10일 중진공 전북서부지부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서부 경제의 주축인 군산산단 내 대기업의 가동율이 저하, 이에 하도급 업체 경영난 가중에 따른 위기 타결을 위해 마련됐다.

㈜김장독 문성호 대표이사는 "창업기업에 문턱을 낮춰주길 바란다"며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류봉걸 금융본부장은 "창업자금 확충, 금리인하, 시설투자 활성화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광영 기자